

보 도 자 료 2014.11.20.(목)	내용문의	장혜경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02-3156-7141)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4.11.20.(목)
	※ 총 10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2030 가족의 미래변화, 생활중심 밀착대응이 핵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 주제로 토론회 개최

⇒ **2030년 여성·가족정책의 핵심은 소득보장-돌봄-가족법의 유기적 결합**
“혈연 중심 가족법 구조 탈피” 를 통한 **가족개념의 확장**
견고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부담의 최소화”
다원화된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돌봄 공유의 실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11월 20일(목)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여성·가족정책 영역 발굴과 미래 대응 주요 정책과제 및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4개년 기획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진행한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가족미래 시나리오를 통한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명선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맞물려, 가족과 가족정책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 및 보급 등에 따라 생활방식은 물론 노동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가족 패러다임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이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히며,
 - “오늘 토론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미래 가족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가 “가족의 미래와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가족과 노동의 경계를 넘어서” 를 주제로 기초발제를,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이 “2030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정책패러다임과 선제적 정책과제” 를 주제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장혜경 실장은 한국가족변화 흐름의 주요 특징으로
 - ① 개인화와 생애주기의 탈표준화, ② 가족의 다양성과 비정형성 가구의 증가, ③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의 약화, ④ 가족돌봄 및 재생산 기능의 약화를 들었다.
 - 그리고 “2030가족의 모습은 유연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 2인생계부양자 및 일·가정양립정책 확산과 초저출산시대의 자녀돌봄정책 고도화, 고령화와 종합적인 노인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한 가족선택권 강화와 관련법 정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현되는 최선의 가족미래시나리오에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로 나타난 바 있다” 고 밝혔다.

<표> 최선의 가족미래시나리오 :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

시나리오 축 (요소)		설명
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수준 낮음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간 임금격차가 줄어들 ·주거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음 ·소득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적게 나타남
돌봄 방식	국가지원	·유아,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됨 ·노인 대상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또는 저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
가족 의식	개인중심가치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큼 개인의 생활(여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 ·가족구성원은 상호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 ·가족의 관심보다 개인의 관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함

- 따라서 “2030년 여성가족정책전망은 소득보장-돌봄-가족법의 유기적 결합으로 재편될 때 최선의 가족미래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가족미래 대응을 위해 톱니바퀴형 정책연동과 생활중심 밀착대응을 위한 한뼘거리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또한 2030년을 대비하여 가족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판단한 정책과제의 중요성·시급성의 우선순위 및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작성된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소득보장, 돌봄, 가족법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후에는 가족미래대응 정책과제 2011년-2014년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종합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붙임 1. 2030년 미래가족 소득보장정책, 돌봄정책, 가족법 로드맵**
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2010-2014) 연구 특징
3. 행사 개요

붙임 1

2030년 미래가족 소득보장정책, 돌봄정책, 가족법 로드맵

□ 소득보장정책 로드맵

연도		2015 ← → 2030										
정책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시행예정		개별급여체계 개편, 상대적 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수준적정화					급여수준에 가족유형 반영						
						주거급여수준 현실화						
				자활사업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자산기준 현실화									
가족원에대한 양육비용 부담완화	현행	무상보육(영유아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지급)										
	아동양육관련 수당의체계화										양육수당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수당, 바우처 제도 통합관리						
개인단위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현행	기초연금제도 시행										
	기초연금 강화										보편적 수당 체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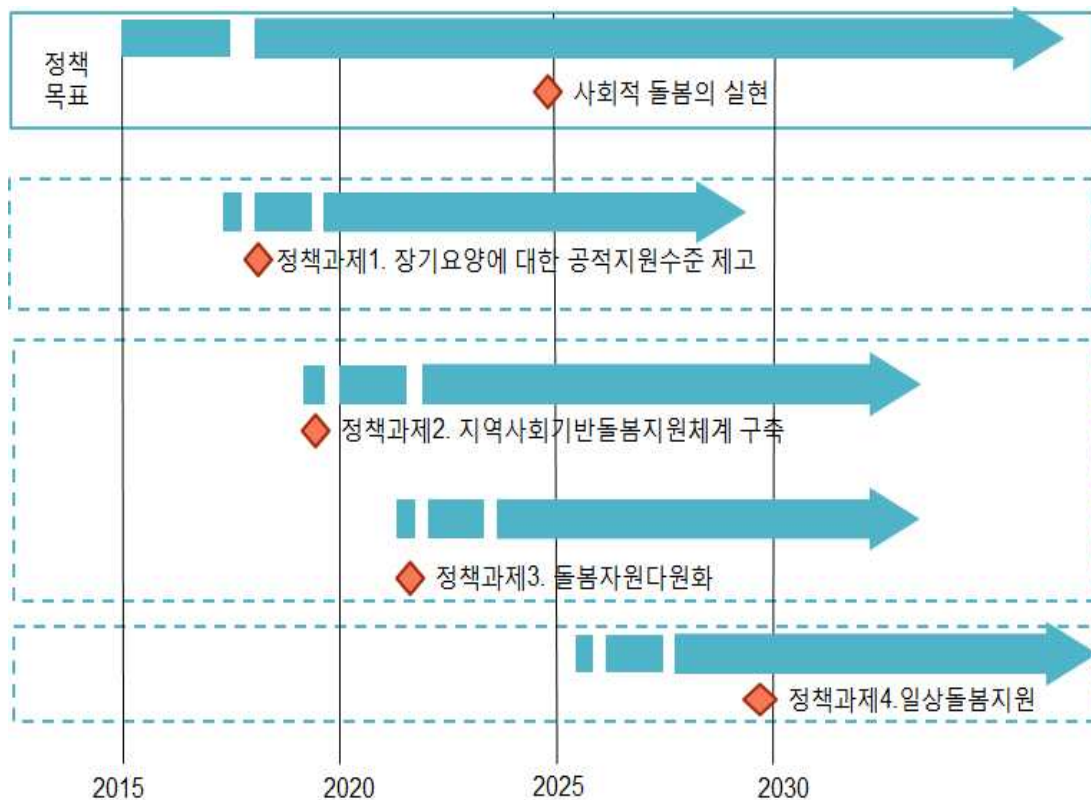
	공적연금 개선					기초연금 급여적절성 확보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국민연금 개별수급권 강화					
						국민연금 파생수급권 단계적 약화					
				공적연금간 형평성 강화							
가족의 연령별 맞춤 지원	청년기 경제적안정성강화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주택 확대/임대 활성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중장년기 경제적안정성강화					노인요양비 부담 완화					
											주거비에 대한 공적 지원강화
				공교육 내실화							
	노년기 경제적안정성강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의 연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일자리 확충								

□ 돌봄정책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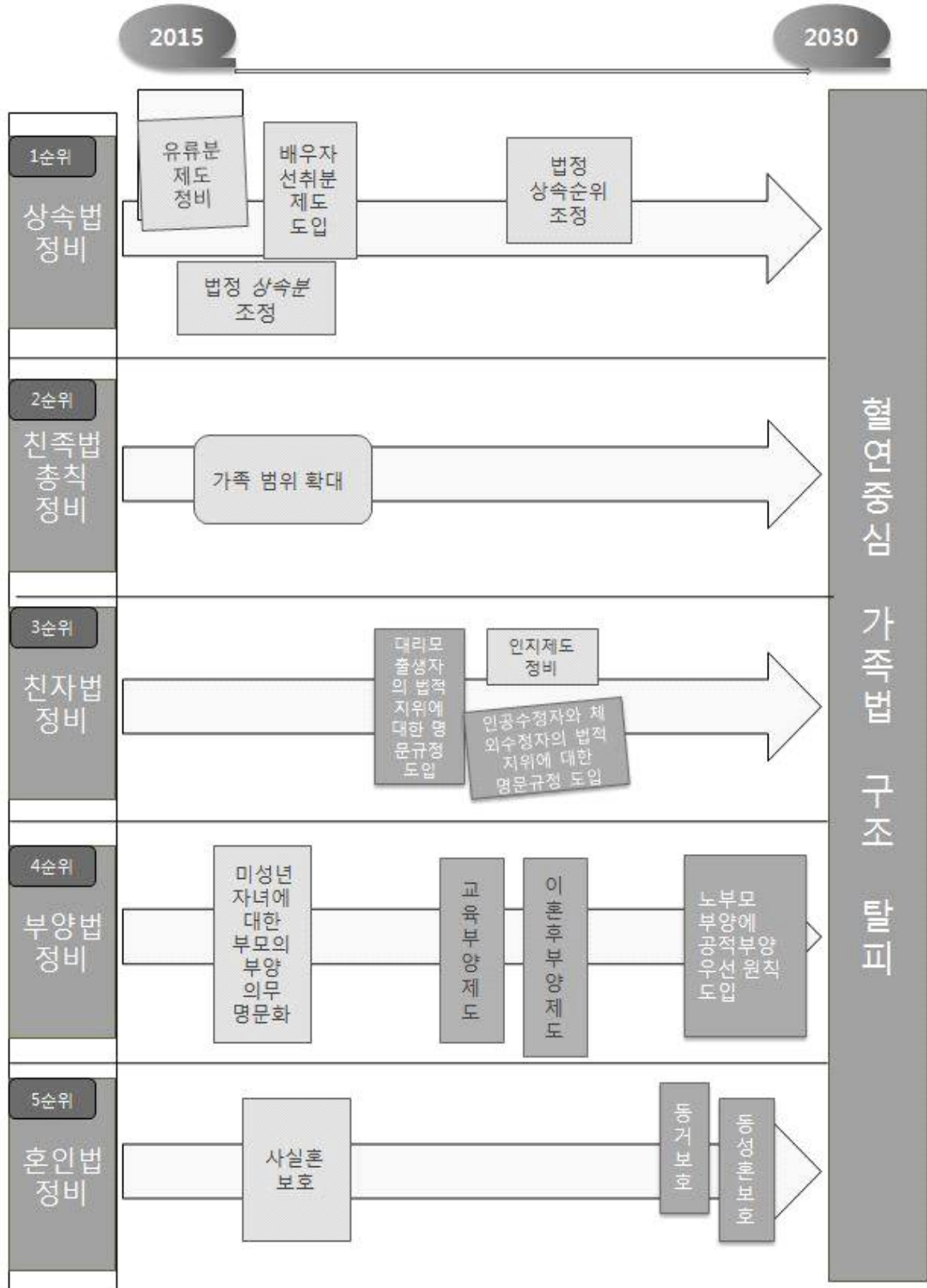
○ 자녀돌봄정책



○ 노인돌봄정책



□ 가족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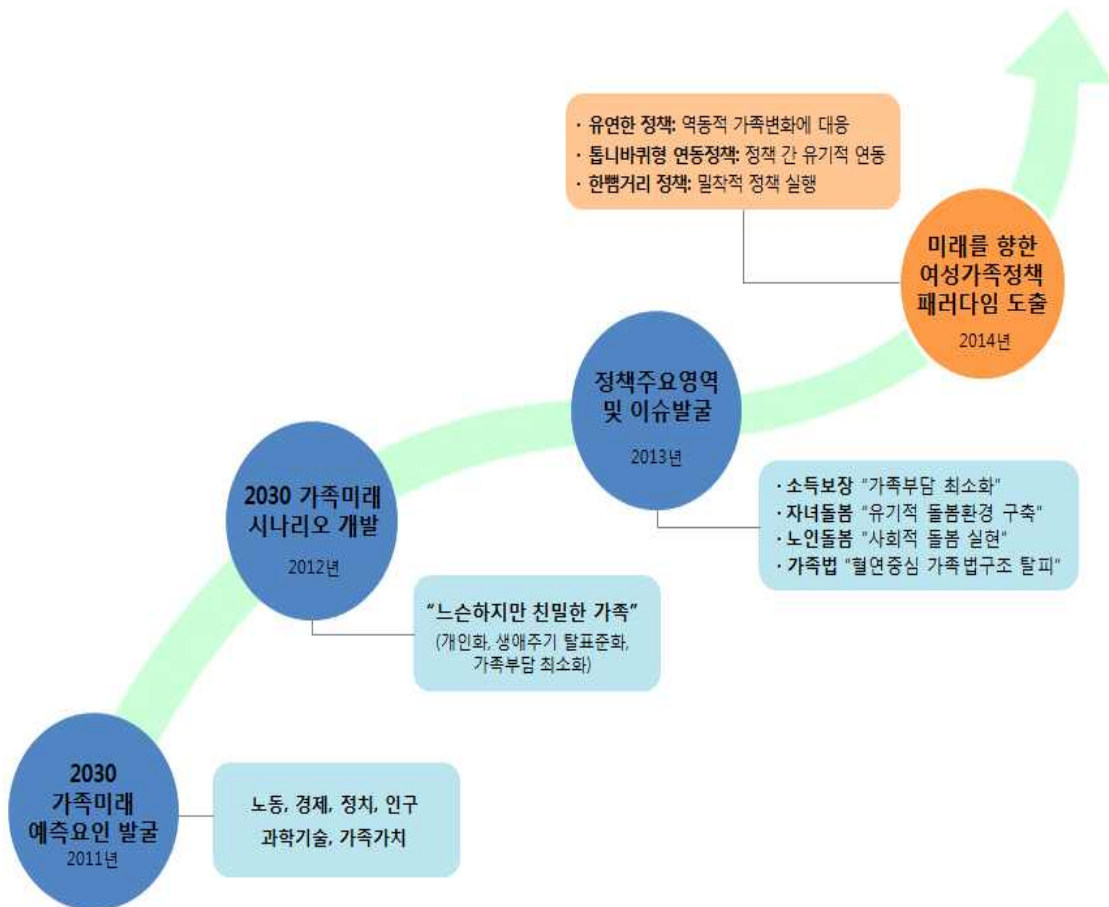
붙임 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2010-2014) 연구 특징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2011-2014) 4개년 기획연구의 특징

1차년도 (2011년)	미래학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진단하는 환경 분석과 가족미래 예측 요인 발굴(인구, 정치, 경제 및 노동, 과학기술, 가족가치)을 통해 가족의 미래모습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수행됨
2차년도 (2012년)	1차년도(2011)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의 미래예측 변동요인들을 기반으로 각 요인들의 변동방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변동방향에 대한 델파이조사 및 시나리오기법을 통해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를 개발함. ¹⁾ 5종의 미래가족 시나리오 중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가장 희구하는 시나리오는 가족돌봄과 경제적불평등이 적고, 개인중심가치가 증가하여 가족구성원간 규범적 부담은 적고 친밀성이 강화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the loose but intimate family scenario)’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가족구조와 젠더/부모역할 등 가족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돌봄정책,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 가족법 등 가족다양화를 고려한 정책들의 필요성이 강조됨.
3차년도 (2013년)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영역인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에서 가족변화와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면밀하게 진단·분석하고 이들 정책영역들과 가족미래시나리오와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미래 여성·가족정책의 추진방향 및 정책아젠더를 도출함. 동 연구에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에 대한 접근은 Milar & Warman(1996)의 가족의무와 관계개념을 원용하여 ‘느슨함’은 법과 제도 내에 내재된 가족의 의무에서 자유로움을, ‘친밀함’은 규범, 의무, 법적 책임에 의한 관계유지에서보다 선호와 친밀성에 기반한 가족관계 유지를 유지함으로써, 함께 살지만 당사자 중심적 삶을 사는 가족으로 규정함.
4차년도 (2014년)	지난 3개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정책영역들인 소득보장, 돌봄(자녀와 노인), 가족법의 2030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면서 2030년을 향한 정책로드맵을 설정함

1) 2012년 연구에서 시나리오 구성 측은 경제적 불평등(증가와 감소), 돌봄방식(시장돌봄과 국가돌봄차원에서 증가와 감소), 가족의식(개인중심가치 강화와 약화) 세 가지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선정된 가족미래시나리오는 5종이다: ① ‘개인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the conflict between personal values and family life scenario. 경제적 불평등 증가, 가족돌봄부담 증가, 개인중심가치 약화); ②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the polarization of family life scenario. 경제적 불평등 증가, 상품화된 서비스로 가족돌봄부담 감소, 개인중심가치 강화); ③ ‘느슨하지만 친밀한 시나리오’ (the loose but intimate scenario. 경제적 불평등 감소, 가족돌봄부담 감소, 개인중심가치 강화); ④ ‘평등사회, 불평등가족 공존 시나리오’ (the coexistence of equal society and unequal scenario. 경제적 불평등 감소, 가족돌봄부담 감소, 개인중심가치 약화); ⑤ ‘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 (the maximized familial burden scenario. 경제적 불평등 증가, 가족돌봄부담 증가, 개인중심가치 약화). 일반국민 및 전문가조사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시나리오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였다 (장혜경외, 2012:143-155).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2011-2014) 4개년 기획연구의 단계별 특징



붙임 3 행사 개요

- ☐ 목적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연구결과 홍보 및 확산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20일(목)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 주제 :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
-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사 회 : 이아름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개회사 : 이명선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축 사 : 민현주 의원 (새누리당)
14:10-14:40	기조 발제	미래에 대한 비전, 가족과 사회(정책)의 방향성 이재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14:30-16:00		세션 1 : 2030 가족미래에 대응하는 정책패러다임과 선제적 정책과제 사회 : 최혜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발표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외 가족미래연구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김혜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배인구 부장관사 (서울가정법원) 이영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운정 팀장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김숙자 과장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16:00-16:20	휴식	
16:20-18:00		세션 2: 가족미래대응 정책과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패 널 :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김영란, 김소영 연구위원외 가족미래연구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김규륜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김수완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연규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원 소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서용석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안경희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우병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이명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재훈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00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